

傳統住宅 船橋莊의 建築理論과 計劃概念 연구

- 集合論的 解釋을 중심으로 -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1. 연구의 목적과 방법¹⁾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선교장은 전통적인 주거 가운데 매우 예외적인 존재이다. 우선 현존 가옥의 규모만도 건물 9동, 총 102칸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진 살림집이다. 또한 다른 주택의 사랑채에 해당할 건물이 열화당 동별당 서별당 작은사랑 활래정 등 5개소에 이르는 등 기능적 특수성을 가진다. 그 외에도 기능구성과 칸살잡이, 공간구성 어느 면에서도 강릉지역의 지역적 성격을 따르지 않는 예외성을 보인다.²⁾(<그림-2>참조) 선교장의 이러한 건축적 독자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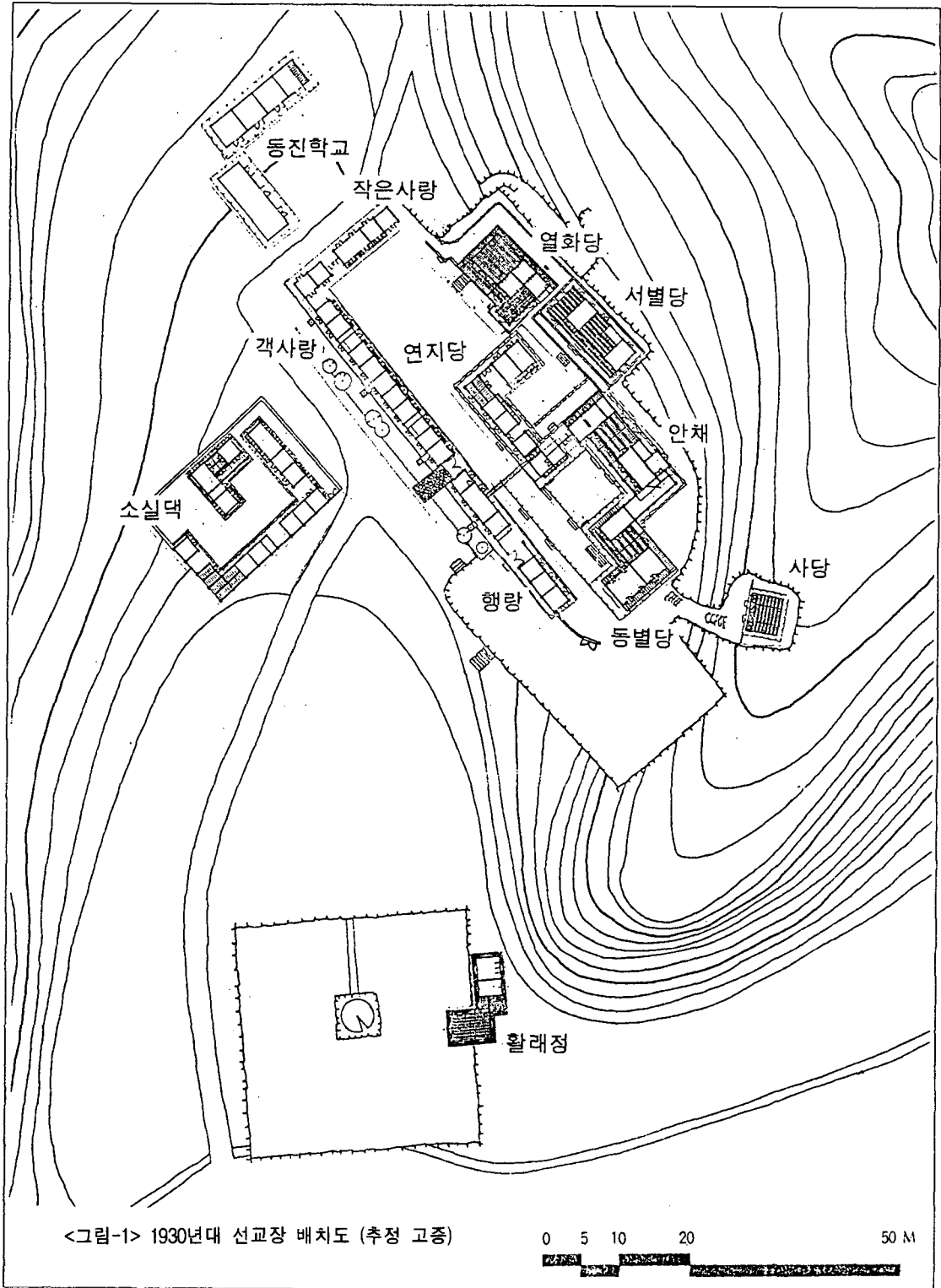
분석보다는 과거 선교장을 건축했던 집주인들의 건축적 목표를 밝히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건축주들의 개념과 목적이 문헌을 통해 뚜렷이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장의 가계사와 조영사의 복원을 통해 선교장주들의 의도를 읽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선교장의 건축적 목표를 밝혀내고, 그를 위해 설정된 계획개념과 설계요소들을 추출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장 건축 당시의 목표설정부터 최종적인 요소의 선택까지, 건축계획의 모든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럼으로써, 각 단계에 적용되고 선택된 개념과 요소들을 관류하는 선교장의 건축이론을 추출하려 한다.

선교장은 1756년에 開基하여 1960년대에 안채부를 개조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에 이른다. 이 대저택은 거의 20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장 변화해 왔다. 따라서 어느 고정된 시점에서 건축적 구성을 분석하는 정태적 관점으로는 선교장의 계획과정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채택하고 있는 집합론적 해석은 한 시점에서의 건축구성 뿐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친 시간적 변화를 포착하고, 그들의 중첩적인

1)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고 정인국은 선교장 건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적이 있고, 이후 선교장에 대한 문헌들은 대개 정인국 선생의 평가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국 주택의 배치구성을 두가지로 나누자면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교장은 분산형 배치를 한 집으로 안동지방의 집중형 주택과는 또 다른 묘미가 있다. 통일감과 짜임새는 조금 결여되었으나 다른 상류주택에서 볼 수 없는 인간미가 넘치는 활발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주택에서 보이는 허세와 유교적 규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정인국, 韓國建築樣式論, 일지사, 1974, 401쪽.)



<그림-1> 1930년대 선교장 배치도 (추정 고증)

개념들의 단층을 한 겹씩 펼쳐볼 수 있는 방법론이라 생각한다.³⁾

2. 선교장 이씨의 家系와 造營史

2-1. 이씨문중의 가계사(<표-1>참조)

선교장 최초의 입향조는 李乃蕃(1693-1781)으로, 세종 임금의 둘째 형인 효녕대군 11세손이다. 그의 부친인 李胄華(1635-1708)는 충주에 세거하던 토반층이었다.⁴⁾ 그는 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첫째 부인 의령 남씨와 둘째 경주 정씨의 묘는 충주와 진천에 남아있다. 이내번의 친모친은 셋째 부인인 안동 권씨였고, 강릉에는 권씨의 친정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되어있다.⁵⁾ 처음 경포호 부근의 저동에 자리잡았던 이내번 모자가 현재의 배다리 골에 선교장의 기틀을 잡은 것은 대략 1760년경으로 보인다.⁶⁾

이내번은 후사를 잇지 못해서 이복형 重蕃의 아들 時春(1736-1785)을 양자로 맞아들였다.

3) 필자는 집합론적 방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실험한 바 있다.

김봉렬, 고운사 건축의 집합유형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6집, 9-21쪽, 1994.12.

김봉렬, 집합이 건축이다 - 병산서원, 월간 <이상건축>, 1996년 1월호.

4) <完山李氏 孝寧大君 靖孝公派譜>. 왕족의 자손들은 5세손까지 벼슬이 금지돼 있었다. 따라서 6세손부터 벼슬길에 올랐으나 주로 단성현감 등 중하위직이었다. 그나마 이주화 대에 이르르면 進士 幼學 등 무관이 대부분이었다.

5) 권부인이 아들 이내번과 함께 강릉으로 이주하게 된 원인은 분명치 않다. 단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충주 시택의 차별적 분위기를 피해 아들의 장래를 위해 친정쪽 연고가 있었던 강릉의 저동으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따름이다. 권부인은 남편보다 최소한 27년 연하였고, 이내번을 낳은 것은 남편이 68세 때였다. 그나마 이내번이 15세 때 부친 이증화는 타계하고 만다. 아버지 또래의 늙은 남편에게 3재취로 시집은 지 15년 만에 청상과부가 된 권부인이 앞선 부인들의 처족들에게 시달렸을 차별과 고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김봉렬, 가족을 위한 장원의 구조 - 선교장, <이상건축> 1997년 10월호, 참조)

6) 문화재관리국,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제3집, 1989. 235-236쪽에 수록된 이내번의 <準戶口> 기록을 검토하면, 1756년의 거주지는 부북면 경호리였으나, 1762년의 것은 부북면 정동 조산리로 되어있다. 경호리는 현재 방해정 부근의 저동이며, 조산리는 현재의 운정동 배다리골이다.

이시춘은 2대 선교장주가 된 지 4년만에 죽고 후, 승조, 유복자인 향조, 삼 형제를 두었다. 李堧(1773-1832)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3대 선교장주가 되었다.⁷⁾ 4번의 과거 시험을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⁸⁾ 중년에는 과거보기를 포기했다.⁹⁾ 2남3녀를 두었는데 먼저 죽은 두 동생의 가족들을 함께 돌보았다.

평생 은둔처사로 지냈던 李堧와는 달리 그의 아들대인 4대 龍九(1798-1837)와 鳳九(1802-1885)는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특히, 이봉구는 1850년 청안현감을 거쳐 1853년 통천군수를 지내면서 善政을 베풀어 선교장 이씨가를 通川宅으로 불려지게끔 한 인물이다.¹⁰⁾

4대 선교장주 이용구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는데 이 당시 14세의 회숙과 7세의 회원 형제를 남겨두었다. 4대에 이어 5대의 會淑(1823-1876)과 會原(1830-1909)도 진사,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5대 선교장주가 된 이회숙은 참봉과 현령 벼슬을 지냈다. 동생 이회원은 이봉구의 양자로 들어가 어린 시절부터 서울에서 자라면서 오랫동안 관직생활을 했다.¹¹⁾

5대 회숙, 회원 형제의 관직진출로 인해 외부활동은 활발해진 반면에 선교장 본가는 4대 이후로 자손이 귀해져서 가계를 잇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입향 초기의 상황처럼 큰집과 작은집이 서로 양자를 주고받으면서 겨우 선교장 이씨의 가계를 잇게 된다.¹²⁾

아버지 이회원과 함께 선교장에 내려와 있던 장남 根宇(1877-1938)는 후사가 없던 이회숙의

7)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237쪽 1786년 처음으로 당시 14세의 이익조(李益朝) 이름으로 된 준호구 문서가 있다. - 앞의 책, 237-20쪽에 수록된 이후의 準戶口 문서를 보면, 이후의 初諱는 冕朝이지만, 益朝, 慶朝, 夏冕, 厚朝 등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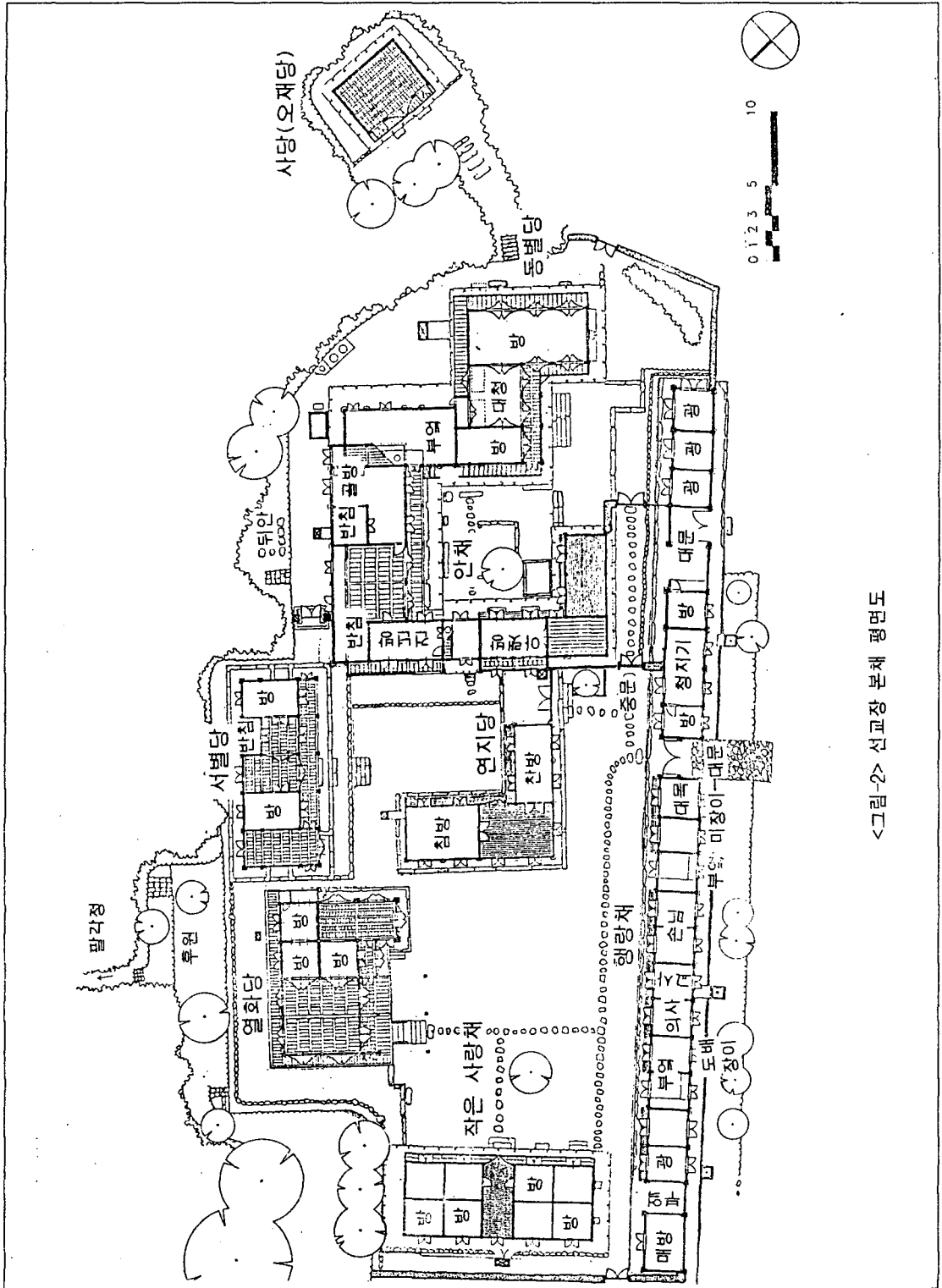
8)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227-228쪽. 李堧의 試卷을 보면, 1791년부터 1822년까지 4번에 걸쳐 과거 시험을 치렀다.

9) <墓碣銘>, <<繁隱遺稿>>, ...中年廢舉子業...

10) 이기서, 江陵 船橋莊, 열화당, 1996, 74쪽

11) 문화재관리국, 앞의 책, 229쪽. 이회숙의 試券을 보면, 현종10년(1844)에 서울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12) 선교장 이씨가는 자손이 귀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12촌 내외가 많았다고 한다. (성기희 여사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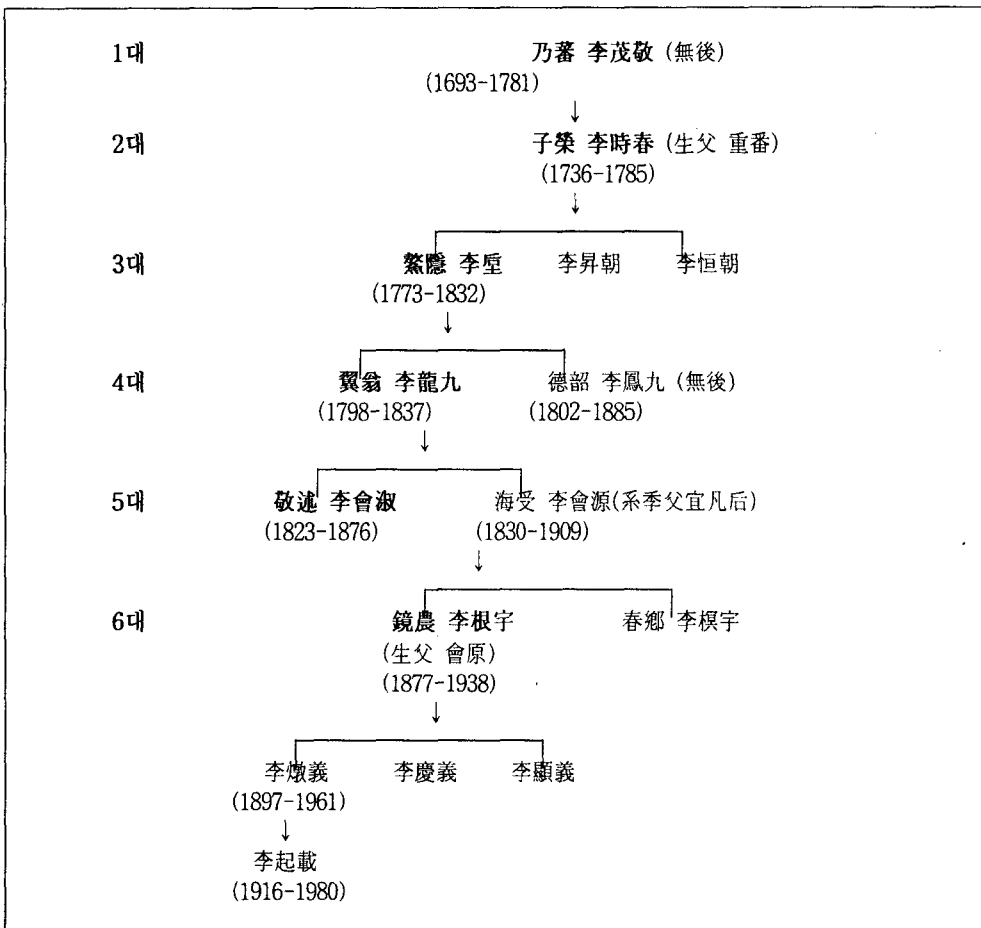
<그림 2> 선교장 본채 평면도

뒤를 이어 6대 선교장주가 된다. 이근우는 시문과 서화로 당대에 이름을 떨쳤던 여러 인물들¹³⁾을 선교장에 초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혔다. 6대 이근우 이후 선교장 이씨의 자손들이 번창해서 선교장 주변 곳곳에 지손들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¹⁴⁾

2-2. 선교장의 조영사

입향조 이내번을 1대로 친다면, 현재 선교장을 지키고 있는 이강백씨는 9대에 속한다. 역대 선교장주들은 끊임없이 선교장을 확장하고 고쳐왔지만, 획기적인 건축적 변화는 대개 1대 이내번 - 3대 이후 - 6대 이근우 당시였다고 볼 수 있다.

<표-1> 선교장 이씨의 가계도



현재 선교장에 남아있는 토지매매문서(明文), 準戶口文書, 戶口單子, 試券, 教旨 등의 문헌자료와 遺稿集, 선교장 이씨의 족보 등을 검토하고 후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교장 조영의 역사적 근거를 찾아 그 변화 과정을 추적

13) 이기서, 앞의 책, 73-74쪽, 小南 李喜秀, 茂亭 鄭萬朝, 葵園 鄭丙朝, 惺堂 金敦熙, 海岡 金圭鎮, 一洲 金振宇, 白蓮池雲英, 農泉 李丙熙, 惺齋 金台錫, 玉蕭 沈衡燮, 此江 朴基正 등이 있다.

14) 인터뷰 내용(성기희 여사)

하면 <표-2>와 같다.

< 표-2 > 文獻에 나타난 조영 기록

관련건물	연대	기록 문헌
開基 당시 주택	1756	토지매입문서 準戶口文書
小宅	1795-1798	準戶口文書, 토지매입문서
悅話堂 건립	1815	鰲隱遺稿
蓮池 및 活來亭 조성	1816	活來亭記
안채 중수	1853	안채 重修上標文
放海亭 건립	1859	放海亭上標文, 토지매입문서
활래정 중수	1906	活來亭重修記
방해정 수리	1924	放海亭重修記
東別堂 신축 안채 변화	1920 년경	
안채 반빛간 중축	1960 년대	

2-3. 선교장주들의 건축적 목표

선교장이 200년 동안 확장 변화하면서, 각 시기를 담당했던 선교장주들의 환경과 생각은 서로 달랐다. 당연히 각 시기별로 건축적인 목표도 달랐다. 가장 중요했던 3명의 선교장주, 1대 이내번과 3대 이후, 그리고 6대 이근우의 생활환경과 행적을 추적하여 각 시기의 건축적 목표를 찾아낼 수 있다.

(1) 이내번의 뿌리내리기

처음 경포대 부근의 저동에 자리잡은 이내번 모자는 가지고온 재산을 기반으로 열심히 토지를 매입해 차근차근 부를 축적해 나갔다.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이씨가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터전으로 발견한 곳이 현재의 배다리였다. 이전에는 창령 조씨들이 살았고, 더 전에는 강릉 박씨들이 살았다고 한다. 이씨가 이 땅을 사들여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게 됐다.¹⁵⁾ 그가 배다리골을 선택한 것은 큰

부자가 될만한 풍수지리적 형국이 마음에 들어서였다고 전한다.

예전에는 선교장 활래정 바로 앞까지 경포호의 물이 차 나루터가 있었고, 나루터에서 다리를 건너 육지에 닿을 수 있었다. 또한 경포호 인근의 넓은 들과 여러 골짜기의 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입지였다. 비단 풍수지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교통과 영농의 요지에 집터를 옮긴 이유는 철저히 경제적 실리를 좇은 실용성 때문이었다.

이내번 당대에는 지금의 안채를 중심으로한 보통 상류주택 정도의 집을 지었던 것으로 전한다. 당시 지어진 살림집의 모습은 口자형이었다고 전하니, 강릉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류주택의 전형이었던 것 같다.

(2) 이후의 대가족주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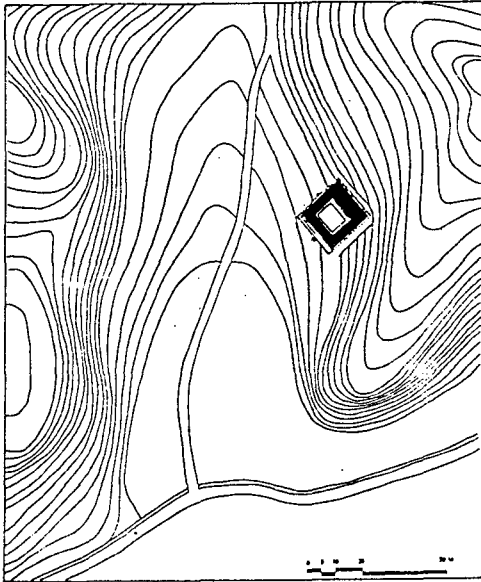
오른 李厓는 현재 선교장의 구성들을 마련한 인물이며, 보통 상류주택 수준의 선교장을 경제적 건축적 측면에서 대규모 저택으로 바꾸어 놓은 장본인이다. 이후가 선교장의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는 당시의 가족사에서 찾을 수 있다.

부친이 죽은 13세 때부터 어린 나이에 돌볼 수 없고 두 동생 승조와 항조를 키웠으나, 둘다 어린 조카들을 남긴채 일찍 죽어버렸다. 아직도 강릉은 낮은 타향으로 다른 일가붙이가 없었으니, 어린 조카들을 양육할 책임을 져야 했다. 본인 스스로 말했듯이 평생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으면서도 알뜰히 관리했던 이유는 강릉의 토착 가문들의 견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함 이었고, 또 한가지 이유로는 두 동생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했던 대가족에 대한 의무감이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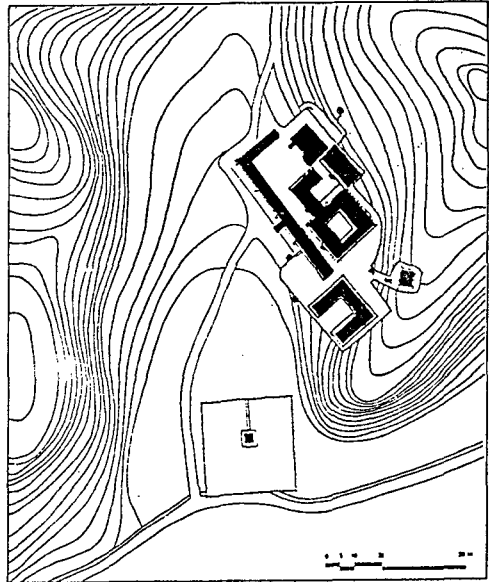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분가시키지 않고 한 집안에 어울려 살게 했다. 안채의 아래채를 증축해 승조의 가족을 거처하게 했고 열화당을 지어 항조의 유족들을 거처케 했다.¹⁶⁾ 悅話堂이라는 집 이름도 “친척들의 정

15) 김기설, 江陵地域地名由來, 인에서, 1992, 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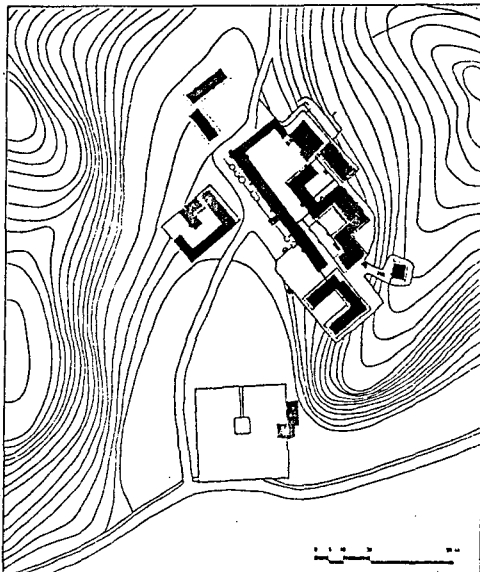
16) 이기서, 앞의 책, 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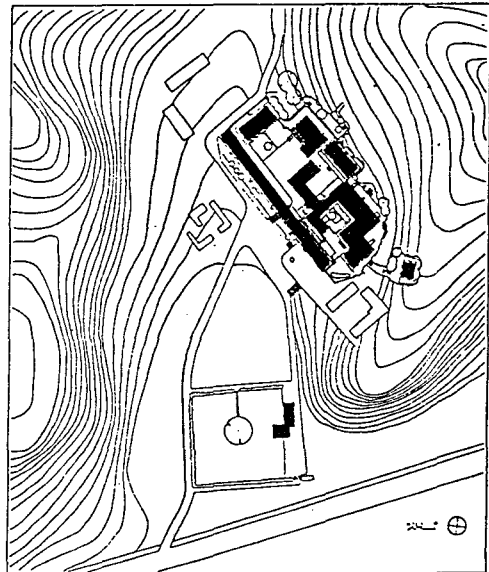
제 1기(이내번)



제 2기(이 후)



제 3기(이근우)



현재

<그림-3> 선교장 조영 변천도

다운 이야기를 즐겨듣는다”는 시귀에서 차용한 것으로,¹⁷⁾ 얼마나 가족들의 화합과 행복을 염원했는지 추측할만하다.

비록 그가 죽은 직후, 큰아들 이용구에 의해 준공됐지만, 서별당의 건립도 이후 스스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서별당은 집안의 남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은 서재다. 어느 대가집도 이러한 사설 학원을 집안에 들인 경우가 없었다. 그만큼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직계가족 뿐 아니라 지손의 가족까지 한 집안에 사는 ‘대가족 제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3) 이근우의 대장원 건설

5대 이회숙과 6대 이근우 대에 오면서 선교장의 성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다. 선교장이씨는 효과적 농업경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강원도 굴지의 대부호로 떠올라 강릉 토착가문들의 견제를 따돌릴 수 있었다. 또한 4대 이봉구부터 중앙 관직 진출에 성공하면서 가문의 교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후손들의 증가로 더 이상 한 집안에서 모여살기가 불가능해 집 바깥에 별채들을 지어 분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워진 열화당 영역은 자연스레 전국에서 모여든 손님들의 숙소가 되었다. 대가족을 위한 주택에서 전국적 교류장으로 선교장의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건축적 변화도 수반됐다. 활래정을 지금과 같은 위치와 형태로 중건하고, 안채의 일부를 헐어내고 현재의 동별당을 앉혔다. 행랑채 대문 앞에 번듯한 소실택도 세웠다. 이들 세건물의 건설은 단지 선교장의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배다리골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계기였다. 활래정은 배다리골의 지형을 완결시키는 형태로 놓인다. 또 소실택과 여러 부속 농막들을 배다리골 안에 건립함으로써, 선교장의 영역은 행랑으로 구획된 건물 안에서 배다리골 전체로 확장되는 결과가 되었다. 활래정은 그 거대한 영역의 경계에 놓여진 건물이었다.

또, 이씨가 별장이었던 기존의 방해정을 중수하고 그 옆에 대규모의 솔밭을 조성하여 <李家園>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이가원의 경계는 다음아닌 경포호의 옥잠암이었고, 이제 선교장의 개념적 영역은 배다리골에서 경포호 북쪽의 자연까지 확대했다.

3. 건축구성의 시기적 변화

총 9대, 200여년에 걸친 선교장 조영사를 3개의 중요한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3>과 같고, 이들을 도면화시키면 <그림-3>과 같다.

3-1. 제1기 (1756-1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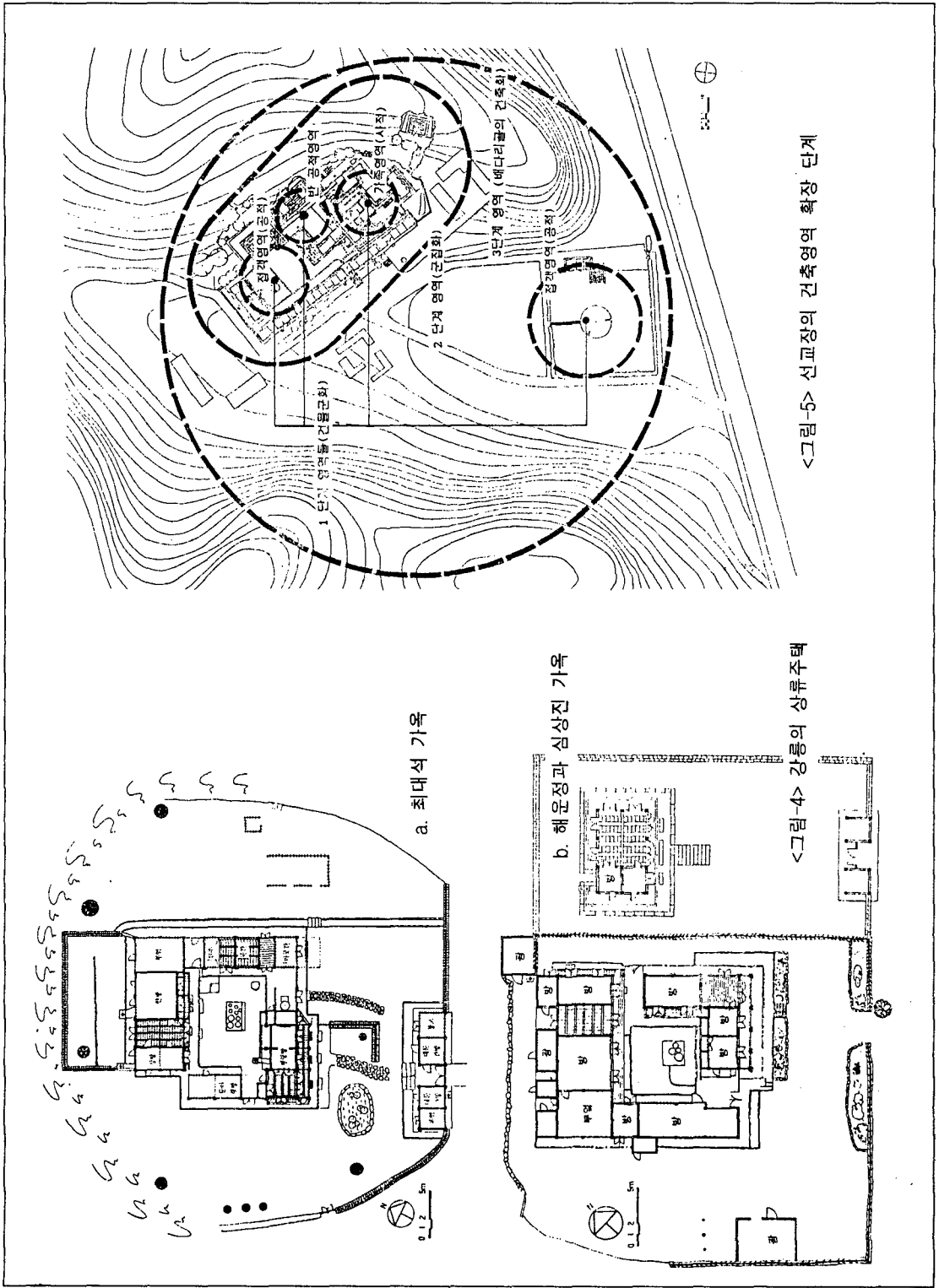
제1기는 선교장의 터잡기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현재 안채 건물이 開基하던 당시의 건물의 일부라고 전해지고 있다.¹⁸⁾ 1920년대 동별당을 건립하면서 口자형 건물의 일부를 헐었다고 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口자형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배다리골에는 이미 강릉 박씨들이 씨족마을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선교장의 영역은 口자형 살림집의 경계를 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안채의 모습을 보면 건넌방, 대청, 안방 그리고 부엌 부분이 겹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방과 건넌방의 후면에 있는 방은 주로 반침이나 골방의 수장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동별당 건립 이전의 평면에서 보면 부엌 아래로 광 등의 수장 공간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구성은 <그림-4>와 같이 강릉의 다른 상류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안채 모습으로서, 강릉으로 이주한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씨가 초기에는 이 지역의 일반적인 상류주거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8) 이기서, 앞의 책, 80쪽

19) 이기서, 앞의 책, 84쪽

17) 陶淵明, <歸去來辭>. 悅親戚之情話.



<그림-5> 신포장의 건축영역 확장 단계

<그림-4> 강릉의 상류주택

3-2. 제2기 (1786-1843)

3대 堧는 현 선교장을 대표하는 건물인 열화당, 蓮池 그리고 (옛)활래정 등을 조성하면서 전체 선교장주 가운데 가장 활발한 조영 활동을 했다. 1기에 비해 새로운 건물이 다수 건립되면서 그 경계를 점점 확장시켰는데 이러한 경향은 4대 龍九와 鳳九 대에도 계속 이어져 선교장 본가에는 서별당이, 경포대 근처에 방해정²⁰⁾ 등이 건립되었다.

<표-3> 선교장 조영사의 시기구분

조영시기	선교장주	관련건물
제1기 (1756-1785)	1대 이내번 2대 이시춘	□자 살림채 신축
제2기 (1786-1843)	3대 이후 4대 이용구	소택 신축 열화당 신축 연지 및 활래정 서별당 신축 방해정 신축
제3기	5대 이회숙 6대 이근우	안채 중수 활래정 중건 동별당 신축 소실택 신축 방해정 중수

3대에는 세 형제가, 4대에는 두 형제가 함께 생활하면서 앞 시기에 비해 선교장의 가족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 가족들을 수용하기 위해 제2기에는 열화당과 소택을 비롯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열화당은 이후의 공부방으로 사용하면서 사별한 두 동생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했다. 장성한 조카들의 별채로 건립한 소택의 위치는 李堧의 墓 闕銘에 형제와 자질들 및 종들도 함께 살았다²¹⁾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의 거처인 대택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

20) 방해정을 건립연대를 보면 1859년으로 제3기에 속한다. 하지만 그 건축주가 4대 이용구의 동생 이봉구로서 전체조영기간을 선교장주 중심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제2기에 포함시켰다.

21) 兄弟子姪及童僕同居一室家庭之內... 이기서, 앞의 책, 113쪽

된다. 6대 이근우 당시 지손들이 分財하기 이전에 거쳐했다고 전해지는 외별당이 소택으로 추정된다.²²⁾

열화당과 대택 사이에 위치한 서별당과 연지당도 이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간의 기능상 서별당은 열화당의 영역에 속하고, 연지당은 대택의 행랑채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一자형의 서별당과 ㄴ자형의 연지당과 두 건물이 만들어내는 마당은 열화당과 대택의 중간영역을 형성하면서 두 영역을 분리시키고 있다. 또한 열화당과 대택의 전면에 이르는 긴 행랑채도 이후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³⁾ 배다리골 입구에 조성된 蓮池와 활래정은 선교장의 영역을 골짜기 내부에서 전면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됐다.

3-3. 제3기 (1844-1938) (<그림-1>참조)

5대 會淑이 오랜 관직생활을 하고 또 가계를 잇지 못하고 죽자 선교장 조영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6대 根宇에 의해 선교장 조영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2기와는 달리 주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시 짓거나 장식을 덧붙여 이용하면서, 건물의 용도와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 시기는 선교장 이씨가와 관련있는 건물들이 배다리골 곳곳에 건립됨에 따라 골짜기 전체가 선교장 영역으로 확장되는 시기이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관직생활을 한 이회원이 1894년 서울에서 선교장으로 내려오면서 선교장은 가족들을 위한 주택에서 외부 손님을 접대하고 머무는 공적인 영역이 분화되어, 가족들의 私의영역과 接客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²⁴⁾

22) 외별당 터 건물의 건립연대를 180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소택의 건립연대로 추정하는 1790년와 연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이강백씨 고증)

23) 이기서, 앞의 책, 67쪽

24) - 러시아와의 수교 무렵인 1884년 경 러시아 공사가 열흘 정도 머물다가 돌아간 후 그 답례로 기술자들을 보내 열화당 차양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인터뷰 내용 (이강백씨)

특히 이근우대에는 수많은 외부 손님들이 짧게는 한 주, 길게는 수 개월을 머물렀다²⁵⁾고 한다. 손님의 신분에 따라 열화당, 작은사랑, 아랫사랑 등 장소를 구별하여 접대하였다. 이 접객의 영역은 행랑채의 솟을대문으로 진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접객 영역은 가족들의 주택 영역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서별당과 연지당 사이공간이 벽돌을 쌓은 담으로 막혀 있었고 마찬가지로 안채와 행랑채 사이도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일부에 작은 문이 나 있었다. 또 솟을대문으로 진입하면 연지당에 중문이 반재마당과 연결되어 있었다.

20여 칸이 넘는 전면의 긴 행랑채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용도로 쓰였다. 안채 앞에 있는 행랑채 부분은 하인 방과 광으로 쓰여 안채의 살림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안채와 행랑채 사이를 벽으로 막고 중문을 달았는데 주로 외부 손님을 수발하는 하인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심부름을 했다. 연지당과 열화당 앞에 있는 행랑채 부분은 선교장의 집안 일을 돌보던 장인들이 거주했다. 행랑채에는 하인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목, 소목, 미장이, 가정교사, 의사(약사), 도배장이, 대장장이, 금은 세공장이 등이 선교장에 머물면서 집안 일을 했다고 한다.²⁶⁾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선교장의 여러 집안 일들을 했다.

4. 건축의 목표와 계획개념

4-1. 건축의 목표 : 莊園의 건설

선교장주들의 건축적 목표는 세대마다 차이를 보여왔다. 초기에는 타향에 입향하여 가문의 뿌리내리기를 위한 살림집의 건설이 목표였다가, 형제 가족들이 같이 사는 대가족 수용을 위한 대저택으로 확장되어, 최종적으로 전국적

인 사교중심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선교장 이씨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건축의 목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大莊園 건설이 최종적인 목표가 됐다.

장원은 사회정치적 경제적 건축적 복합체라 할 수 있다. 만석 수확이 넘는 막대한 토지의 집중과 수백명에 달하는 소작인 조직, 지역별로 분산된 곡물 창고 운송 등이 선교장이라는 장원 운용의 경제적 토대였다.²⁷⁾ 이러한 재력을 바탕으로 당대의 정치실세들, 대가급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까지도 선교장의 교우범위여서, 전국적 범위의 정치사회적 중심을 이룰 수 있었다.²⁸⁾

이러한 공공적 용도를 위해 안채영역은 직계 가족의 살림집으로, 열화당 영역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손님과 식객들의 접대용 주거로 이원화된 주택 경영체제로 전환됐다. 동시에, 선교장 본채 안에서만 형성됐던 주거 영역은 배다리골 전체로 확장되어, 소실택을 비롯한 부속 농막들이 본채 바깥에 세워지게 됐다. 비로소 '선교莊'이라는 집 이름에 어울리는 지역 중심의 공공적 주거라는 '莊園'으로서 성격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근우는 우선 교우 범위를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에 걸맞는 접객공간을 마련했다. 열화당은 선교장주의 공식적인 접객장소인 동시에 수많은 손님들끼리의 교우장소로도 쓰인, 비교적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접객공간이었다.

27) 서병패, 19세기 양반층 토지보유 상황에 관한 연구 - 선교장 추수기를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쪽. 선교장의 토지는 경포호 일대를 비롯해 영동지방 남북으로 고루 걸쳐있었고, 멀리는 선산이 있는 충청도 지역에 까지 분포되었다. 영동 일대에서 추수된 곡식을 모두 거두어 들이지 않고, 강릉 북쪽지역은 북촌(주문진)에, 남쪽 지역은 남촌(목호)에 큰 창고를 두어 현지에서 보관했다.

28) 趙寅永, <活來亭記>. 영의정 조인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정치가 명망가들이 술하게 왕립했으며, 심지어 개화기의 러시아 영사까지 초청하여 그 보답으로 열화당 앞의 채양을 선물받기도 했다. 이희수 정만조 정병조 김규진 지운영 김태식 등 조선말 서예의 대가들도 초빙되어 자신들의 작품을 선교장에 기증하기도 했다. 근대기에 들어서는 이시영과 여운형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선교장의 주인 손님들이었다.

- 이것은 당시 이희원이 서울에서 외교 관련 관직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25) 이기서, 앞의 책, 73쪽

26) 인터뷰 내용 (성기희 여사)

반면 활래정은 주인과 친분이 두터운 손님들만의 반공공적인 접객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자격도 엄격했고 수자도 적었다. 안채영역의 동별당은 통상적인 주인의 사랑채였다. 여기서는 집안 식구들 간의 교류는 물론, 가문의 친족들이 모여서 가문사를 논하고 상의했던 더욱 사적인 접객공간이었다. 배다리골에 설정된 이 세 공간과는 별도로, 경포호변에 마련된 방해정은 장기체류하는 귀한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장의 일종이었다.

4-2. 私的 영역과 公的 영역의 병치 (<그림-5>참조)

장원으로서의 선교장은 하나의 주택이 아니다. '대가족'이 사는 주택과, 외부 손님들을 위한 주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다. 동쪽 안채와 동별당이 가족용의 사적 영역이라면, 서쪽 열화당 부분은 접객을 위한 공적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별당이 이씨의 사랑채라면, 열화당은 장원의 주인을 위한 공관에 해당한다. 동별당과 안채는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주택이며, 열화당 영역은 또 하나의 집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영역 사이에 서별당 부분이 삽입된다. 서별당부는 본채인 서별당과 이를 감싸는 부속채 연지당으로 이루어진다. 서별당은 집안의 남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서재로 활용하던 곳이다. 남자 어른들의 열화당과 여자 어른들의 안채 사이에 끼어 있으며, 안채-서별당-열화당의 세 건물은 마루를 통해 은밀히 연결돼 있었다고 전한다. 세 건물의 위치와 연결관계는 선교장 가족들의 구성과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서별당이 깊숙한 곳에서 가족들의 연결체 역할을 했다면, 연지당은 가족 영역과 손님 영역을 철저히 차단하는 경계물 역할을 했다. 연지당에는 주로 여자하인들이 기거하면서 외부 손님들의 동태를 엿보면서, 집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열화당 부분과 안채부분은 ㄴ자 연지당의 매스로 강하게 분리된

다. 앞에서는 연지당이 두 영역을 분리시키고, 안에서는 서별당이 두 영역을 연결시킨다. 선교장의 영역적 이중성을 절묘하게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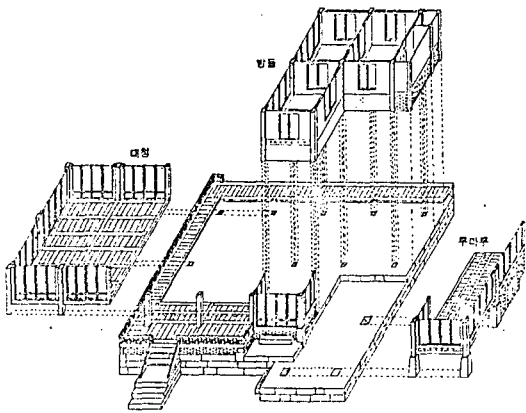
병치된 사적-공적 두 영역은 줄행랑으로 엮어진다. 줄행랑은 비록 하나의 몸체지만, 기능적으로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안채 부분은 살림살이를 넣어두는 광들로 이용되지만, 열화당 부분은 집안에 초빙된 가정교사와 의사, 기술자들, 그리고 손님들이 기숙하는 객사랑으로 이용된다. 사적 영역에 속한 행랑채는 사적인 용도로, 공적 영역의 행랑채는 공적 용도로 대응하고 있다. 줄행랑에 있는 두 개의 대문 중, 동쪽 안채 쪽의 평대문은 가족들의 일상적인 출입구로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며, 서쪽 열화당 쪽의 솟을대문은 공공적이며 개방적인 대문이다.²⁹⁾

서별당부터 서쪽의 공적 영역을 생략하고 본다면, 안채 중심의 사적 영역의 구성이 잘 드러난다. 연지당과 안채 사이에는 두 개의 중문이 설치되고, 그 사이 마당은 곧 가족용 대문의 은밀한 입구가 된다. 사랑채인 동별당과 ㄷ자 안채가 대각선으로 결합되어 살림채를 이룬다. 동별당 앞은 사랑마당이며, 사랑에 가까운 뒷동산에 가묘가 놓인다. 이러한 구성만으로도 일반적인 상류주거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는 독립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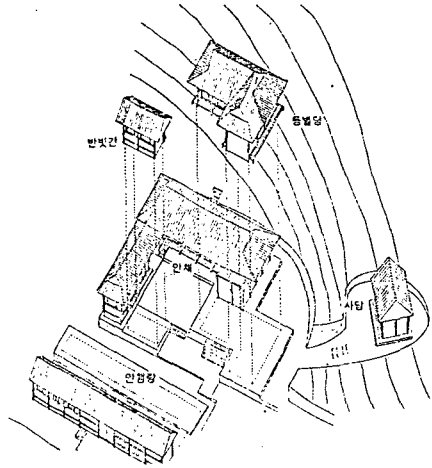
4-3. 주거영역의 중첩적 확장 (<그림-5>참조)

선교장의 두 영역은 동서로 나란히 놓인,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이 감싸고 있는 중첩적인 구성이다. 선교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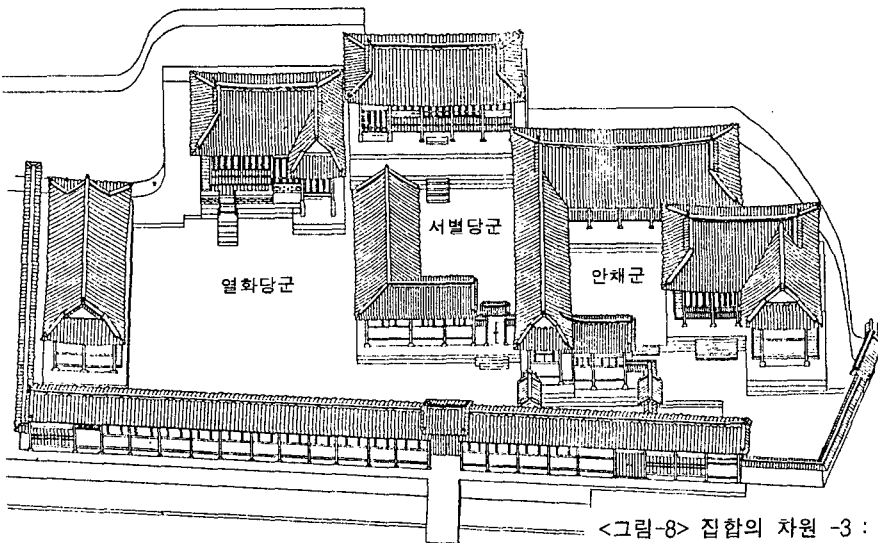
29) 창덕궁 연경당의 대문도 이와 같은 형상이다. 줄행랑에 사랑채 진입부는 솟을대문을, 안채 진입부는 평대문을 설치했다. 그 때문에 선교장의 동쪽문을 안대문, 서쪽을 사랑대문이라 생각하면서 대문이 분리된 희귀한 예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선교장의 동쪽 대문은 가족용 대문, 서쪽은 손님용 대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족용 주택과 접객용 주거라는 두 집에 난 별도의 대문이다. 두 대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장 비밀의 열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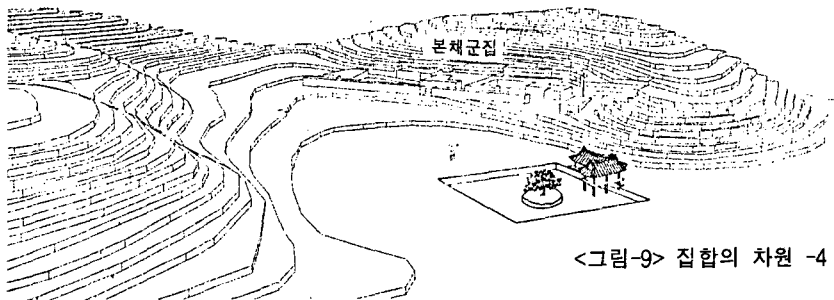
<그림-6> 집합의 차원 -1 : 열화당의 구성



<그림-7> 집합의 차원 -2 : 안채군의 구성



<그림-8> 집합의 차원 -3 : 분채군집의 구성



<그림-9> 집합의 차원 -4 : 지리적 차원의 집합

통해서 한국건축의 집합구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군들의 형태적인 집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장의 조영사가 축적해 온 시간적 집합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선 안채와 동별당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가족생활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을 담고 있다. 이 영역은 이내번이 처음 터를 잡고 지었다는 □자집의 확대판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열화당 서별당 군이 증축되면서 성격이 변화된다. 이미 말한대로 증축부는 삼형제 가족의 단란을 위한 목적이었고 여러 건물군들을 전면의 줄행랑이 엮어주면서 집의 물리적 영역이 확장됐다. 동시에 기존 살림집의 영역은 줄행랑으로 묶인 전체 속의 부분이 되고 만다. 기존 사랑채의 공공성은 새로 지어진 열화당으로 중심을 옮기게 되어, 영역의 성격도 변화된다.

6대 이근우 대에 오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 골안에 수십채의 부속 침실 - 농막들이 서게 되어 배다리골 전체로 선교장의 영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확대된 영역의 경계는 골을 이루는 능선이고, 동구 앞의 활래정과 방지는 앞 뒤 능선을 연결하는 인공적 경계물이 된다. 줄행랑 안의 기존 선교장 영역은 배다리골이라는 전체 속에서 다시 부분이 되고, 열화당의 공공성은 활래정으로 확대된다. 경포 해수욕장 부근에 조성된 방해정과 이가원은 선교장 영역을 배다리골 바깥으로 확대시킨 의미를 가진다. 활래정의 공공성도 방해정까지 확장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평범한 상류주택의 영역에서 출발한 선교장은 3차에 걸쳐서 영역과 경계를 확장해 왔다. 대가족제를 위한 복합주거 영역으로, 또 골짜기 전체의 장원적 규모로, 더 나아가 경포호 일대를 포괄하는 자연적 범위로. 그리고 영역의 확대과정에는 항상 새로운 공공적 건물을 건설해 새로운 영역성을 부여해 왔다. 열화당 - 활래정 - 방해정이 그것이다. 영역 확장과 새 공적 건물의 건설사는 곧바로 선교장 경영사나 건축사의 또 다른 일면이다.

5. 해석 - 집합의 차원과 설계요소

체계를 갖춘 대규모 복합적인 건축물은 필연적으로 집합적 구조와 질서를 가진다. 선교장의 경우는 여러 대에 걸친 확장과 변화로 인해 다양한 건물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지만, 각 부분들은 매우 조직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교장의 건물과 공간들은 적어도 4개의 차원에서 각기 다른 집합적 구조를 이루며, 이들의 일정한 위계를 가지고 중첩되어 있다.

단위 실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각 건물들은 다시 건물군을 이룬다. 선교장에는 4개 이상의 건물군이 존재하며, 이들 건물군들은 서로의 관계에 의해 군집을 이룬다. 군집은 다시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지리적 차원에서 집합적으로 구조화된다. 이런 중첩적인 4개의 집합적 차원을 각각 건물의 차원, 건물군의 차원, 군집의 차원, 지리적 차원으로 명명한다면, 각 차원에서 집합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건축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5-1. 건물 차원의 집합요소 (<그림-6> 참조)

선교장에는 10동의 건물이 존재한다. 각 건물들은 형태도 평면도 다르지만, 모두 여러 칸의 방들이 모여 이루는 집합적 관계를 보여준다. 즉, 건물 차원의 집합요소는 방들임을 알 수 있는데, 단위가 되는 방들은 3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온돌방과 마루방, 그리고 흙바닥방이다. 물론 이 분류는 바닥의 재료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각기 독특한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온돌 마루 흙방의 개별적 성격보다는 그들간에 일어나는 집합적 관계다. 예컨대 <흙방+흙방>의 집합은 창고나 작업장의 건물을 구성하게 되며, <마루+마루>의 집합은 루각을 이루게 된다. 한국 살림집의 보편적인 집합은 <온돌+마루>의 구성을 따른다. 선교장

의 많은 건물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열화당은 <온돌방+마루방>이라는 요소의 집합적 성격을 잘 드러낸다. 열화당은 공공적인 손님접객 건물로, 4칸의 마루방과 3칸의 온돌방, 그리고 2칸의 루마루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칸 온돌방과 2칸 루마루방의 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동형 살림집의 온돌방은 4개의 칸을 田자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열화당은 田자형 평면의 한칸에 온돌 대신 루마루를 들인 형상이 됐다. 3칸의 온돌방은 ㄱ자형으로 구성되며, 2칸 루마루는 一자형으로 깊이감을 더한다. ㄱ자방들의 옆으로는 대청마루가, 앞으로는 루마루가 결합된다. 따라서 3칸의 온돌방 모두가 마루와 접할 수 있게 됐다. 田자형 평면을 고집했으면 당연히 어느 한칸은 마루에 접하지 못하여 <온돌+온돌>의 집합이 되었을 것이다.

루마루 밑을 아궁이 공간으로 사용하여 <온돌+마루>의 집합요소를 더욱 심화시킨다. 온돌과 마루는 건물 차원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나 하나는 중성적인 성격을 가질 뿐, 오로지 온돌과 마루의 집합적 관계에 의해서 공간의 성격이 규정된다. 건물의 차원에서 <온돌+마루>라는 요소는 분리할 수 없는 최소의 집합적 요소가 된다.

5-2. 건물군의 차원과 외부공간 (<그림-7>참조)

선교장에는 4개의 건물군이 존재한다. 동쪽의 안채군, 서쪽의 열화당군, 그 사이의 서별당군, 그리고 활래정과 연지로 이루어지는 활래정군이다. 이외에도 줄행랑 바깥 배다리골 안에는 외별당군, 소실대군, 동진학교군, 기타 농막군 등 여러 영역의 건물군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채군은 최초의 선교장이 터를 잡은 곳이며 강릉형 口자집에서 변화 확장된 결과물이다. 북쪽 몸채와 서쪽 아랫방들은 원래 口자집의 일부가 그대로 남은 것이고, 동쪽의 ㄱ자형 동

별당은 1930년대에, 남쪽 2칸 반빗간은 1970년대에 추가된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행랑채와 옆으로 사당채가 덧붙음으로써 안채군의 영역을 형성한다.

건물과 건물이 집합되어 건물군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집합의 매개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마당>이라는 외부공간이다. 몸채와 아랫방, 반빗간과 동별당의 4건물은 안마당을 둘러싸면서 하나의 완결된 건물군을 이룬다. 동별당이 증축되면서 외부공간은 두 개로 확장된다. 정방형의 안마당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ㄱ자 동별당의 형상에 맞추어 한단 낮은 곳에 세로로 긴 외부공간이 형성되고, 앞의 안행랑채 마당과 평행하게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안행랑 뒷마당을 따라 온 진입동선은 동별당 마당을 거쳐 안마당의 모퉁이에 이르게 된다.

안행랑 뒷마당 - 동별당마당 - 안마당의 3개 외부공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전이하는 공간적 연속성을 갖는다. 이 공간적 연속성이 안채군 5개 건물들을 집합시키는 강력한 집합요소로 작용한다.

5-3. 군집의 차원과 데이텀 요소 (<그림-8>참조)

선교장의 4개 건물군들 가운데, 안채군과 서별당군과 열화당군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활래정군과 분리된다. 3개 건물군이 모인 군집을 '본채'라고 부를 수 있고, 통상적인 의미에서 '선교장'이라 불려왔다.

본채의 3 건물군은 각기 다른 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안채군은 직계가족들만의 살림집으로 폐쇄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열화당군은 수많은 식객들과 손님들에게 개방된 영역이다. 반면 서별당군은 침모 유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안채군과 열화당군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半公的-半私的 영역을 이룬다. 마당의 개방도 역시 열화당군>서별당군>안채군의 순으로 폐쇄화된다. 마당의 크기 역시 열화당군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장

크고, 안채군이 가장 작다. 건물의 형태도 열화당이 접객중심으로 가장 화려하고 독특하다.

이러한 각기 다른 3건물군을 하나의 '본채'로 통합시켜주는 요소는 전면에 길게 세워진 23칸의 줄행랑채다. 줄행랑채를 전면에 설정함으로써 열화당군 마당은 외부와 격리될 수 있었고, 안채군의 공간적 폐쇄성은 더욱 심화됐다. 또한 객대문을 서별당군 앞에 놓음으로써 열화당 마당으로의 진입동선을 적이게 하는 효과도 거둔다. 또, 줄행랑은 열화당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놓였기 때문에 열화당으로의 투시도적 깊이를 느끼게도 만든다. 각기 다른 공간의 크기와 성격들은 직선적인 줄행랑에 의해 분화되면서 동시에 하나의 본채로 집합될 수 있었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건물군집들을 긴 줄행랑채가 하나의 집합적 형태로 통일시켜 준다. 자칫 무작위한 건물 집단이 될 수도 있는 선교장을 줄행랑이라는 기준요소(datum)를³⁰⁾ 도입해 조직적인 집합체로 만들 수 있었다.

5-4. 지리적 차원과 활래정 (<그림-9>참조)

선교장의 두 개의 군집 - 본채와 활래정군-은 크기나 용도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본채는 3개의 건물군과 10동의 건물이 모인, 대부분의 생활과 접객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활래정군은 건물 한동과 연못 뿐이고, 건물의 규모와 이용인원도 극소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집이 대등한 위상을 갖는 것은 배다리골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지형과 관계 때문이다.

본채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배다리골 안에서는 하나의 부분적 건물군집에 불과하다. 반면 활래정군은 앞산과 뒷산의 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조물이며, 활래정의 위치와 존재 때문에 배다리골은 단일한 건축적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활래정은 하나의 건물이기도 하고, 건물군이기도 하며, 군집이기도 하다. 즉,

활래정은 건물-건물군-군집의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집합요소가 된다. 활래정은 두 개의 건물을 직교시킨 복합적 형태인데, 마치 뒷산의 맥을 받아 앞산으로 전달해 주는 형태로 해석된다. 형태까지도 지형의 일부를 이루도록 계획한 것이다. 줄행랑채가 군집차원의 강력한 데이텀이었다면, 활래정은 지리적 차원의 필수불가결한 데이텀적 요소다.

6. 결론

200년간의 조영사를 통해서, 선교장이 추구했던 건축적 목표는 평범한 상류주택에서 시작하여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장원'으로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교장의 건축가들이 채택했던 계획개념은 '거주영역의 중첩적 확장'이었고, 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한 설계요소들은 중심으로서의 외부공간이나 줄행랑이나 활래정과 같은 '데이텀으로서의 집합적 요소'들이었다.

직계가족만을 위한 초기의 선교장은 손님용 주거와 가족용 주거로 이원화되면서 3개의 건물군으로 확장됐다. 3개의 건물군 영역들은 줄행랑이라는 강력한 데이텀 요소로 집합화되고 통합되어 하나의 본채를 이룬다. 선교장의 영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활래정이라는 데이텀 요소를 통해 능선으로 둘러싸인 배다리골 전체로 확장된다. 3차에 걸친 영역확장은 방해정과 이가원이라는 별장경영을 통해 경포호 일대로 광역화된다.

영역확장 과정과 설계요소의 선택은 집합적 해석을 통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설계요소란 집합의 차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군의 차원에서는 개별단위의 방들의 결합, 구체적으로는 <온돌+마루>라는 방 단위 관계성이 집합요소로 등장한다. 반면, 건물군의 차원에서는 <마당>이라는 외부공간 요소가 집합적 요소로 채택되며, 군집의 차원에서는 줄행랑이라는 단위건물이 집합요소로, 지리적 차원에서는 활래정군이라는 건물군이 집

30) Francis D. K. Ching, *Architecture ; Form, Space, and Order*, 359쪽.

합요소로 작용한다.

건축적 목표와 계획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설계요소들을 선택해 집합화하는 과정, 그리고 각 과정에서 작용하는 집합적 원리를 건축이론이라 할 수 있다면, 선교장의 건축이론은 '영역의 중첩적 확장을 위한 집합적 구성'이라 요약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鰲隱公遺稿
2. 完山李氏孝寧大君靖孝公派譜
3. 강릉대학교 박물관, 강릉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시+문화재관리국, 1995.
4. 강원도, 강원도사-역사편, 1995.
5. 문화재관리국,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 제3집, 1989.
6. 김기설, 江陵地域地名由來, 인애사. 1992.
7. 이기서, 江陵 船橋莊, 열화당, 1996.
8. 최선만, 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 강릉관광협회, 1962.
9. 강릉문화원, <임영문화> 14집, 1990. .
10. 박호민, 강릉시 지역 누정조사 (1), <영동문화> 제6집,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1995.
11. 이애희, 강원유학의 지역적 특성 (1), (2), <강원문화연구> 11, 12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12. 정은경, 1894년 강릉부에서의 향회운영과 참여세력의 동향, <동대사학> 1집,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1995.
13. 주남철, 강릉의 이조주택, <고고미술> 111집.
14. 허남진 외, 강원유학사의 연구 -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4집, 한국동양철학회, 1993.
15. 서병패, 19세기 양반층 토지보유 상황에 관한 연구 : 선교장의 추수기를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6. 이혜숙, 촌락형성과 주거지 확대에 관한 연구 - 강릉 부근의 주요 사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rchitectural Theories and Planning Concepts of Korean Residence, Soengyo-jang

Kim, Bong Ryol

(Professor,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BSTRACT

Soengyo-jang has some characteristics as the most great house, the special functions, and the non-regional type of house form. And it has constructed continuously for two centuries by many owners in the different generations. It needs a special research method ; which are consist of a) comprehension of background information from documents and oral instructed materials, b) pursuit of design process through the building survey, and c) theoretical interpretation about 'collectivism'.

Fro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revealed that the architectural purpose of this house was constructing "a great manor". At first phase, it had been a single ordinary house, at second, it had expanded to a complex including many housing clusters, and finally became to expand its dwelling territory into whole village. Its expansion was progressed by the four collecting phases of which were building, building cluster, group of clusters, and topological setting. Main design elements operated in each of collecting phases ; they were partial element of <Ondol+Floor>, exterior spaces of <Madang>, a linear building of <Haenglang>, and a pavilion of <Hwalleajeong>. The last two elements were also powerful datum.